학령기 아동의 사회적 지지와 자기평가

강희경*

요약

본 연구는 학령기 아동의 사회적 지지와 자기평가의 일반적 경향을 분석하고, 가족, 친구 및 교사의 사회적 지지가 자기평가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연구대상은 초등학교 5·6학년예 재학 중인 학령기 아동 397명이었고, 연구분석을 통해 나타난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령기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는 어느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대상자들은 가족의 지지를 가장 높은 것으로 지각하였고, 다음으로는 친구의 지지와 교사의 지지 순서의 분포를 보였다. 둘째, 학령기 아동은 자신을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족, 친구 및 교사의 사회적 지지는 아동의 자기 평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사회적 지지는 친구의 지지였고 다음으로는 가족의 지지, 교사의 지지 순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학령기 아동의 사회적 지지와 자기평가에 대한 실천적 이해를 도왔을 뿐 아니라, 아동의 자기평가를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구성을 위한 기본 자료를 제시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주제어 : 학령기 아동, 사회적 지지, 자기평가

논문제출일 : 2011.4.10

최종심사일 : 2011.4.24

게재확정일: 2011.5.1

* 서일대학 사회복지과 부교수

Corresponding Author : Kang, Hee Kyung,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Seoul College, Seoidaehak-Gil 22, Jungnang, Seoul, Korea(131-702) khkyung@seoil.ac.kr

I. 서론

자기평가란 자신을 객관적인 존재로 파악하여 자신을 바라본다는 점에서 자아정체감 및 자아개념과 비슷하다. 그러나 자기평가는 자신을 객관화시켜 단순히 자신을 하나의 이미지로 바라보는 것을 넘어 자신의 능력이나 가치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한다는 점에서 좀더 객관적이다. 즉, 자아평가란 ‘한 인간으로서의 자기 자신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로 학습능력, 사회능력, 운동능력, 자기행동지각, 외모 등의 세부적인 영역을 포괄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이명숙, 1994). 이러한 자기평가는 스스로 자신을 평가하는 ‘주관적인 자기평가’와 사회의 중요한 타인이 자신을 어떤 존재로 평가하는가와 관련된 ‘사회적인 자기평가’로 나눌 수 있다. 즉 자아개념이나 자아정체감과 같은 맥락에서 자신이 갖는 능력이나 태도, 가치 등에 대해 자신이 ‘스스로(I)’를 평가하는 주관적인 영역과 타인에 투영된 자아를 살펴보기 위해 중요한 타인들인 부모, 또래 친구 등이 ‘나(me)’에 대해 어떻게 평가할지를 예측해 보는 사회적인 자기평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다(구정화, 1994). 이렇듯 자기평가는 자아존중감, 자아개념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관련 연구가 적은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겠다.

자기평가는 사회비교와 반영적 평가라는 두 가지 기제를 통하여 발달한다. 사회비교이론(Festinger, 1954)에서는 자신의 어떤 측면에 대해서는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만 판단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인간은 자기와 ‘비교될 만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함으로써 자신의 능력, 태도 등을 평가한다. 따라서 친구집단은 학령기에 자기평가의 준거집단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부모보다 더욱 중요한 사회화 대행자로서 역할을 수행한다(이명숙, 1994). 학령기 친구관계는 심리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아동이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상을 형성하도록 하며, 가족 외부의 사회에 적응하는데 도움을 준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친구 관계가 아동이 대인관계나 직업에 있어서 적응력이 높은 성인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과 기술을 익히는 장이 되기도 한다(정윤주, 2004).

사회비교이론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여러 학자들에 의해 수정 또는 보완되었는데, 이렇게 보완된 사회비교이론에서 강조하는 것은 인간은 단순히 타인과 비교하여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기 자신의 발전과 자기 개선을 위해 활용하게 된다는 점이다(Wood, 1989). 이러한 논의는 아동의 자기평가가 이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중요한

결정인자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셈이다. Rosenberg(1979)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고전적 연구에서는 긍정적인 자기평가를 보여주는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대상자들이 그렇지 않은 대상자들보다 불안 수준이 낮았고, 대인관계가 좋으며 자신감과 리더십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상대적으로 높은 자기표현력, 자기 확신, 인내, 리더십, 사회성 기술을 보여주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구정화(1995)의 국내연구에서도 긍정적인 자기평가 대상자들이 부정적인 자기평가 대상자들보다 스트레스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사회비교이론에 근거하면, 자기평가의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학령기 아동의 사회적 관계를 중심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관계의 차원은 개인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를 통하여 보편적으로 측정되고 있다. 사회적 지지란 수혜자로 하여금 보살펴지고 있으며, 사랑받고 존중되어지고, 의사소통망에 소속되어 있으며 서로 의지하고 필요되어지는 상호의 무감이 존재한다고 믿는 관계(Turner & Avison, 1985)를 의미한다. 아동의 성장함에 따라 다양한 환경에서 다수의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많은 능력을 확장하게 되므로 연령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 지각이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학령기 후기로 갈수록 가족의 영향력은 점차 감소하는 반면 친구의 영향력은 더욱 커지고 친구와의 관계가 가족이나 교사들과의 관계보다 더욱 밀착되므로 학년이 높을수록 친구의 지지를 높게 지각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한미현, 1996).

초등학교 입학으로 시작되는 학령기의 시작은 ‘학교’라는 공식적 체계로의 진입과 함께 가족이라는 환경 속에 머무르던 아동의 삶이 가족 외부 환경까지 확대됨을 의미한다. 이에 부모와 형제자매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인간관계가 학령기가 시작되면서 교사 및 또래 친구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게 되고 자연히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특히 학령기 아동에게 친구의 존재는 아동의 사회적, 인지적, 정서적 발달 등과 같이 총체적인 발달을 지원하는 중요한 체계라고 할 수 있다(Newman & Newman, 1995: 355). 경험적 연구결과들은 친구의 사회적 지지가 아동의 부정적인 자아개념 형성에 영향을 미치며(Hymel, Bowker, & Woody, 1993), 우울과 같은 내면적 문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Boivin, Hymel, & Bukowski, 1995)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학령기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면, 아동의 자아평가에 있어 가족 뿐 아니라 친구가 중요한 영향력을 가질 것임을 어렵지 않게 가정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인간발달과정에 있어 가족환경은 최초로 경험하는 사회적 환경인 동시에 발달에 지속적이고 누적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아동이 성장발달하면서 관계하는 사회적 환경이 확대되고, 이에 따라 아동발달에 가족 이외의 다른 사회적 환경의 영향력이 중요한 변수로 등장하

게 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 아동의 자기평가를 중심으로, 가족, 친구 및 교사의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에 주목하고자 한다. 즉, 학령기 아동의 자기평가와 사회적 지지의 경향이 어떠한지 분석하고, 가족, 친구 및 교사의 사회적 지지가 자기평가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볼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이론적 가정은 경험적 연구들(여종일, 정문자, 2009; 홍영미, 2010)을 통하여 아동의 사회적 지지와 자기평가를 구성하는 중요한 하위개념인 자아존중감 간의 유의미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학령기 아동의 자기평가와 사회적 지지에 대한 탐색적 이해를 도모하고,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자기평가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실천적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연구문제1> 학령기 아동의 사회적 지지는 어떠한가?

<연구문제2> 학령기 아동의 자기평가는 어떠한가?

<연구문제3> 학령기 아동의 가족, 친구, 교사의 사회적 지지는 자기평가에 영향을 미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은 서울에 소재한 초등학교 5·6학년 397명이다.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선정된 이유는 발달적으로 학령후기가 되면 친구의 존재가 아동의 생활에서 중요하게 자리잡기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지역과 사회경제적 배경을 고려하여, 서울 시내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3개교를 편의 표집하였다. 표집된 학교별로 주임교사를 통하여 질문지 조사 협조를 의뢰하였다. 협조를 수락한 각 학교의 주임교사는 5·6학년에 총 4개 반의 담임교사에게 질문지를 배포하였다. 각 학급의 담임교사는 아동이 배포된 질문지에 응답하도록 지도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수거된 질문지에서 기제가 부실한

사례를 제외하여 총 397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표 1>은 연구대상 아동의 일반적 배경을 보여준다.

아동의 성별 분포를 보면, 남아가 199명으로 전체의 50.1%를 차지하였고, 여아는 198명으로 49.9%를 차지하고 있다.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12.00세(SD=0.54)였으며, 이 들 중 5학년은 133(33.5%)명 그리고 6학년은 264(66.5%)명이었다. 아동의 출생순위를 살펴보면, 첫째인 사례가 47.4%로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고, 다음으로는 둘째 45.1%, 그리고 셋째이하가 7.6%의 분포를 보였다.

가족의 일반적 배경을 보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대졸 이상인 사례가 각각 57.8%, 50.1%를 차지하고 있어서, 연구대상 아동의 부모가 비교적 고학력임을 알 수 있다. 아버지의 직업을 보면, 사무직이 전체 사례의 40.8%를 차지하고 있어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서비스근로직 20.7%, 자영업 19.4%, 전문관리직 17.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경우, 취업한 경우가 48.3%를 차지하고 있다.

아동이 지각한 가족의 경제수준은 ‘중간 정도’라고 응답한 사례가 전체의 74.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여유 있는 편’ 17.9%, 그리고 ‘어려운 편’ 8.1%의 순으로 분포하였다. 아동을 포함한 전체 가족원수는 4인 가족이 63.0%로 가장 많았고, 5인 가족 22.5%, 3인 가족 7.8%, 그리고 6인 이상 가족은 6.6%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

(N=397)

변 수	내 용	빈도(%)	변 수	내 용	빈도(%)
아동의 성별	남	199(50.1)	아동의 학년	5학년	133(33.5)
	녀	198(49.9)		6학년	264(66.5)
아동의 출생순위	첫째	188(47.4)	아동이 지각한 가족경제	여유있는 편	71(17.9)
	둘째	179(45.1)		중간 정도	293(74.0)
	셋째이하	30(7.6)		어려운 편	32(8.1)
父의 교육수준	고졸이하	165(42.2)	母의 교육수준	고졸이하	194(49.9)
	대졸이상	226(57.8)		대졸이상	195(50.1)
가족유형	핵가족	337(85.1)	母의 취업유무	비취업모	201(51.7)
	확대가족	59(14.9)		취업모	188(48.3)
가족원수	3인	31(7.8)	父의 직업	전문관리직	68(17.8)
	4인	249(63.0)		사무직	156(40.8)
	5인	89(22.5)		서비스근로직	79(20.7)
	6인 이상	26(6.6)		자영업	74(19.4)
기타				5(1.3)	

주: 무응답으로 인해 전체 사례수는 차이가 있음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는 한미현(1996)이 개발한 사회적 지지 척도 24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를 구성하는 하위 요인은 ‘친구의 지지’, ‘가족의 지지’, 그리고 ‘교사의 지지’이며, 각 하위 요인은 8개 문항으로 구성된다. 하위 영역별 문항의 내용을 보면, ‘친구의 지지’는 친구들이 아동을 좋아하는지, 잘 도와주는지, 따돌리는지, 아동의 생각이나 말을 잘 들어주는 등에 관한 것이다. ‘가족의 지지’를 측정하는 문항은 아동을 가족이 잘 이해해 주는지, 관심이 많은지,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는지, 중요한 사람으로 존중해 주는지에 대한 지각을 측정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교사의 지지’는 선생님이 아동의 요청을 잘 들어주는지, 아동을 인정해 주는지, 선생님과 친한지 등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의 응답 및 점수 부여 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정말 그렇다(5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지각하는 사회적지지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내적 일치도를 보여주는 Cronbach’s α 는 .89(‘친구의 지지’ 요인 .80, ‘가족의 지지’ 요인 .88, ‘교사의 지지’ 요인 .88)이었다.

아동의 자기 평가는 Harter(1982)가 개발한 자기능력지각척도(Perceived Competence Scale: PCS)를 번안한 이명숙(1994)의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로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아동이 지각한 자기능력 지각을 묻는 36개 문항으로, ‘학업능력 지각’, ‘사회능력 지각’, ‘운동능력 지각’, ‘자기행동 지각’, ‘신체적 외모 지각’, 그리고 ‘자아존중감’ 등 6개 하위 요인 각각 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측정한 아동의 자기평가는 ‘학업능력, 사회능력, 운동능력, 자기행동, 신체적 외모, 자아존중감을 포함하는 자신에 대한 총괄적인 평가’라 할 수 있다. 문항에 대한 반응 양식은 4점 Likert 상의 점수를 갖게 되는데 1점은 낮은 자기평가를, 그리고 4점은 높은 자기평가를 나타낸다. 본 도구의 내적 일치도를 보여주는 Cronbach α 는 .87(‘학업능력 지각’요인 .69, ‘사회능력 지각’요인 .59, ‘운동능력 지각’요인 .71, ‘자기행동 지각’요인 .58, ‘신체적 외모 지각’요인 .77, ‘자아존중감’요인 .70)로 나타났다.

‘학업능력 지각’ 요인은 학교 공부를 잘 한다고 느끼는지, 또래 아이들만큼 자기가 똑똑하다고 느끼는지 등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능력 지각’은 친구를 쉽게 사귀는지, 친구가 많은지 등 친구관계의 질을 묻는 내용이고, ‘운동능력 지각’은 모든 운동을 잘하는지, 새로운 운동이 어떤 것이든 잘 해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지에 대한 지각을 포함한다. ‘자기행동 지각’은 자기가 행동하는 방식을 좋아하는지, 스스로 알아서 잘 행동하는지에 대해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며, ‘신체적 외모 지각’은 자기 생긴 모습에 만족하는지, 잘 생겼다고

생각하는지 등에 관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끝으로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에 대해 만족하는지, 지금 이대로의 자기 자신에게 매우 만족하는지 등에 대한 문항을 포함한다. 본 도구를 사용한 이명숙(1994)의 연구대상자는 초등 6학년~중 1학년생으로 본 연구대상인 초등 5·6학년 아동에게 적용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3. 자료분석

먼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아동의 사회적 지지와 자기 평가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을 위하여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연구대상 아동 및 가족의 일반적 배경 분석을 위하여 빈도 및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아동의 사회적 지지 및 자기평가의 일반적 경향 분석을 위하여서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일반적 배경 변수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지지와 자기평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독립적 t검증과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사회적 지지의 하위 요인에 따른 아동의 자기 평가 분석을 위해서는 적률상관계수와 동시투입방식(enter)의 중다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모든 통계분석은 SPSS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아동의 사회적 지지

본 연구대상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의 일반적 경향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사회적 지지의 전체 평균 점수는 1~5점 Likert 기준 평균 3.83(SD=0.54)점으로 어느 정도 높은 것을 알 수가 있다. 친구와 가족 및 교사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평균 점수는 각각 3.78(SD=0.70), 4.34(SD=0.73), 3.38(SD=0.82)점으로 분석되었다. 각 하위요인별 점수의 차이가 유의한 것인지에 대한 종속적 t검증 결과에서는 모두 유의미한 결과가 산출되었다. 즉,

학령기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는 가족의 지지, 친구의 지지, 그리고 교사의 지지 점수 순서임을 알 수 있었다.

<표 2> 사회적 지지의 일반적 경향 (N=397)

내 용	평균(SD)	1~5점 Likert 기준 평균(SD)
친구의 지지	30.26(5.59)	3.78(0.70)
가족의 지지	34.72(5.84)	4.34(0.73)
교사의 지지	27.03(6.58)	3.38(0.82)
사회적 지지 전체	92.00(13.03)	3.83(0.54)

<표 3> 일반적 배경 변수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지지 (N=397)

변 인	내 용	n	평균(SD)	F(t)값
아동의 성별	남	199	89.94(13.61)	-3.20**
	녀	198	94.08(12.10)	
아동의 출생순위	첫째	188	92.16(12.43)	2.80
	둘째	179	92.72(13.51)	(n.s)
	셋째이하	30	86.70(13.00)	
가족원수	3인	31	87.90(14.68)	2.54
	4인	249	92.91(13.04)	(n.s)
	5인	89	90.07(12.23)	
	6인 이상	26	94.88(12.21)	
아버지 교육수준	고졸이하	165	91.19(13.79)	-0.88
	대졸이상	226	92.36(12.49)	(n.s)
어머니 교육수준	고졸이하	194	91.29(13.52)	-1.01
	대졸이상	195	92.63(12.63)	(n.s)
아버지 직업	전문관리직	68	95.19(13.32)	0.92
	사무직	156	93.14(12.18)	(n.s)
	서비스근로직	79	92.77(14.84)	
	자영업	74	90.77(12.14)	
	기타	5	94.20(11.14)	
어머니 취업유무	비취업모	201	92.94(12.79)	1.16
	취업모	188	91.40(13.17)	(n.s)
가족의 경제수준	여유있는 편	71	95.24(13.29)A	4.57*
	중간	293	91.70(12.73)AB	
	어려운 편	32	87.16(13.66)B	
가족유형	핵가족	337	92.09(12.98)	0.46
	확대가족	59	91.25(13.37)	(n.s)

주: 무응답으로 인해 전체 사례수는 차이가 있음

주. Duncan의 사후검증에 의한 집단화로 같은 문자로 표시된 평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

* p<.05 ** p<.01 n.s.=not significant

<표 3>은 일반적 배경 변수에 따른 사회적 지지 전체 점수의 차이 검증 결과를 보여준다. 표에서 보여주듯이, 아동의 성별과 아동이 지각한 가족의 경제수준에 따라 사회적 지지 점수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여아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M=94.08, SD=12.10) 수준이 남아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 수준(M=89.94, SD=13.61)보다 높았다($t=-3.20$, $p<.01$). 아동이 지각한 가족의 경제수준이 여유 있는 편인 집단의 사회적 지지 점수(M=95.24, SD=13.29)가 어려운 편인 집단의 점수(M=87.16, SD=13.66)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F=4.57$, $p<.05$). 그러나 아동의 출생순위, 가족원수, 부모의 교육수준, 아버지의 직업, 어머니의 취업유무 및 가족유형에 따른 사회적 지지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아동의 일반적 배경 변수에 따른 사회적 지지의 하위 요인별 차이 검증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친구의 사회적 지지 분석에서는 아동의 성별과 출생순위, 가족의 경제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즉 남아보다 여아가, 첫째·둘째 아동이 셋째이하 아동보다, 그리고 가족의 경제수준이 여유 있거나 중간이라고 지각하는 아동이 어려운 편이라고 지각하는 아동보다 친구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족의 지지 분석에서는 가족원수와 어머니의 교육수준,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가족원수가 6인 이상인 아동이 5인인 아동보다, 어머니가 대졸 이상인 아동들이 고졸이하인 아동보다, 그리고 비취업모 가족의 아동이 취업모 가족의 아동보다 가족으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가 높다고 지각하는 것이다.

끝으로 교사의 사회적 지지에서는 아동이 지각한 가족의 경제 수준에 따른 차이만이 나타났다. 가족이 경제수준이 여유 있는 편인 아동의 교사의 지지 점수(M=28.79, SD=6.67)가 어려운 편인 아동의 점수(M=26.68, SD=7.11)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4> 일반적 배경변수에 따른 친구, 가족 및 교사의 사회적 지지 (N=397)

변 수	내 용	n	친구의 지지		가족의 지지		교사의 지지				
			M(SD)	F(t)값	M(SD)	F(t)값	M(SD)	F(t)값			
아동의 성별	남	199	29.22(5.83)	-3.80***	34.25(6.47)	-1.62	26.48(6.68)	-1.67			
	녀	198	31.31(5.14)		35.19(5.09)		(n.s)		27.58(6.44)	(n.s)	
아동의 출생순위	첫째	188	30.21(5.47)A	3.29*	34.86(5.65)	1.47	27.09(6.37)	0.54			
	둘째	179	30.70(5.50)A		34.86(5.83)		(n.s)		27.16(6.82)	(n.s)	
	셋째이하	30	27.90(6.41)B		32.97(6.84)				25.83(6.48)		
가족원수	3인	31	28.87(6.17)	0.74	33.90(7.78)A B	3.80**	25.13(5.61)	1.55			
	4인	249	30.34(5.59)		(n.s)		35.29(5.34)A B		27.28(6.89)	(n.s)	
	5인	89	30.48(5.63)				33.06(6.52)B		26.53(5.73)		
	6인 이상	26	30.62(4.47)				35.85(4.30)A		28.42(7.07)		
아버지 교육수준	고졸이하	165	29.66(5.68)	-1.62	34.10(6.20)	-1.67	27.42(6.90)	1.10			
	대졸이상	226	30.58(5.47)		35.10(5.57)		(n.s)		26.68(6.38)	(n.s)	
어머니 교육수준	고졸이하	194	30.29(5.45)	0.08	34.03(6.00)	-2.25*	26.97(6.96)	-0.08			
	대졸이상	195	30.25(5.74)		(n.s)		35.36(5.67)		27.02(6.27)	(n.s)	
아버지 직업	전문관리 직	68	30.47(5.75)	0.84	35.34(6.02)	0.27	26.78(6.69)	2.08			
	사무직	156	30.87(5.15)		(n.s)		34.97(5.21)		(n.s)	26.30(6.73)	(n.s)
	서비스근 로직	79	29.82(5.71)				34.48(6.39)			28.77(6.87)	
	자영업	74	29.73(5.77)				34.54(5.99)			26.41(5.19)	
	기타	5	31.60(3.58)				35.00(4.53)			27.20(7.40)	
어머니 취업유무	비취업모	201	30.74(5.56)	1.27	35.41(5.22)	2.13*	26.79(6.80)	-0.063			
	취업모	188	30.03(5.34)		(n.s)		34.16(6.30)		27.21(6.35)	(n.s)	
가족의 경제수준	여유있는 편	71	30.93(5.56)A	3.42*	35.52(6.47)	2.12	28.79(6.67)A	3.27*			
	중간	293	30.34(5.39)A		34.71(5.43)		(n.s)		26.65(6.44)A B		
	어려운 편	32	27.91(6.89)B		32.97(7.59)				26.28(7.11)B		
가족유형	핵가족	337	30.42(5.47)	1.44	34.85(5.75)	1.14	26.82(6.65)	-1.33			
	확대가족	59	29.29(6.20)		(n.s)		33.92(6.34)		(n.s)	28.05(6.04)	(n.s)

주. 무응답으로 인해 전체 사례수는 차이가 있음

주. Duncan의 사후검증에 의한 집단화로 같은 문자로 표시된 평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

* p<.05 ** p<.01 n.s.=not significant

2. 아동의 자기평가

<표 5>는 아동이 지각한 자기평가의 일반적 경향 결과를 보여준다. 먼저 자기평가 전체 점수의 평균은 92.96(SD=13.82)점, 1~4점 Likert 기준 2.58(SD=0.38)점으로 분석되어 연구대상 아동이 자신을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하위영역별 점수를 보면, ‘자기행동’ 점수가 16.62(SD=2.6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자아존중감’ 16.32(SD=3.51), ‘사회능력 지각’ 15.96(SD=3.20), ‘운동능력 지각’ 15.54(SD=3.61), ‘학업능력 지각’ 15.12(SD=3.36), 그리고 ‘신체적 외모 지각’ 13.41(SD=3.96)의 순서대로 나타난다.

<표 5> 아동의 자기평가의 일반적 경향 (N=397)

내 용	평균(SD)	1~4점 Likert 기준 평균(SD)
‘학업능력지각’	15.12(3.36)	2.52(0.56)
‘사회능력지각’	15.96(3.20)	2.66(0.53)
‘운동능력지각’	15.54(3.61)	2.59(0.60)
‘자기행동지각’	16.62(2.69)	2.77(0.45)
‘신체적 외모지각’	13.41(3.96)	2.24(0.66)
‘자아존중감’	16.32(3.51)	2.72(0.59)
자기평가 전체 점수	92.96(13.82)	2.58(0.38)

아동의 일반적 배경 변수에 따른 아동의 자기평가 분석은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표에서 보여주듯이, 아동의 출생순위, 어머니의 교육수준, 그리고 아동이 지각한 가족의 경제 수준에 따라 아동의 자기평가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아동의 출생순위에 따른 효과를 보면, 그 순위가 둘째인 아동의 자기평가(M=95.49, SD=13.77)가 셋째 이하인 집단(M=89.20, SD=12.04)보다 유의하게 높았다(F=5.82, p<.01).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에서는 어머니가 고졸이하인 경우(M=91.12, SD=13.05)보다 대졸이상의 고학력(M=94.64, SD=14.35)일 때 아동의 자기평가가 의미 있게 높음을 알 수 있었다(t=-2.53, p<.01). 아동이 지각한 가족경제에 따른 자기평가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데, 가족의 경제가 ‘여유 있는 편’이라고 응답한 아동의 자기평가 점수(M=98.24, SD=14.20)가 ‘중간정도(M=92.19, SD=13.17)’이거나 ‘어려운 편(M=87.78, SD=15.57)’이라고 응답한 아동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8.19, p<.001).

그러나 아동의 성별, 가족원수, 아버지의 교육수준, 아버지의 직업, 어머니의 취업유무, 그

리고 가족유형에 따른 아동의 자기평가 차이분석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표 6>을 통해 알 수 있다.

<표 6> 일반적 배경 변수에 따른 아동의 자기평가 (N=397)

변수	내용	n	평균(SD)	F(t)값
성별	남	199	93.36(12.93)	0.57 (n.s)
	녀	198	92.57(14.69)	
출생순위	첫째	188	91.16(13.77)AB	5.82**
	둘째	179	95.49(13.77)A	
	셋째이하	30	89.20(12.04)B	
가족원수	3인	31	92.81(14.03)	1.24 (n.s)
	4인	249	93.22(14.13)	
	5인	89	91.13(12.24)	
	6인이상	26	96.85(15.08)	
父의 교육수준	고졸이하	165	91.44(13.14)	-1.74 (n.s)
	대졸이상	226	93.88(14.21)	
母의 교육수준	고졸이하	194	91.12(13.05)	-2.53**
	대졸이상	195	94.64(14.35)	
父의 직업	전문관리직	68	92.59(15.55)	0.93 (n.s)
	사무직	156	92.14(13.49)	
	서비스관리직	79	93.08(13.82)	
	자영업	74	90.68(13.07)	
	기 타	5	93.80(7.98)	
母의 취업유무	비취업모	201	94.00(13.55)	1.43 (n.s)
	취업모	188	92.00(13.97)	
가족경제	여유있는 편	71	98.24(14.20)A	8.19***
	중간	293	92.19(13.17)B	
	어려운 편	32	87.78(15.57)B	
가족유형	핵가족	337	92.76(13.73)	-0.55 (n.s)
	확대가족	59	93.83(14.35)	

주. 무응답으로 인해 전체 사례수는 차이가 있음

주. Duncan의 사후검증에 의한 집단화로 같은 문자로 표시된 평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

** p<.01 *** p<.001 n.s.=not significant

3. 아동의 사회적 지지가 자기평가에 미치는 영향

<표 7>은 독립변수, 즉, 아동의 성별과 학년, 그리고 ‘친구의 지지’, ‘가족의 지지’, ‘교사의 지지’와 종속변수인 자기 평가 간의 적률상관계수를 보여준다. 표에서 나타나듯이, 사회적 지지 요인들과 종속변수들 간에는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즉, 아동이

지각하는 친구, 가족 및 교사의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자기평가가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표 7> 사회적 지지와 자기평가의 상관계수표 (N=397)

	1	2	3	4	5	6
1.성별(1=남)	1.00					
2. 학년(1=6학년)	.04	1.00				
3. 친구의 지지	-.19***	-.01	1.00			
4.가족의 지지	-.08	-.01	.30***	1.00		
5.교사의 지지	-.08	-.09	.26***	.30***	1.00	
6.자기평가	.03	-.11*	.44***	.31***	.27***	1.00

*p<.05 *** p<.001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계수에서 다공선성의 기준인 .80보다 작게 나타나 다공선성은 없는 것(김석우, 김정섭, 김명선, 정혜영, 조영기, 박경미, 정성아, 박동성, 백영옥, 2003 :109)으로 나타났다.

‘친구의 지지’, ‘가족의 지지’, 그리고 ‘교사의 지지’ 및 아동의 성별과 학년이 자기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은 동시투입방식(enter)에 의한 중다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표 8>의 분석결과에서 보여주듯이, 아동의 사회적 지지는 자기평가 전체 변량의 26.7%(p<.001)를 설명하여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의미 있는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는 ‘아동의 성별’, ‘아동의 학년’, ‘친구의 지지’, ‘가족의 지지’, ‘교사의 지지’ 모두였으며, 가장 높은 설명력을 보이는 것은 ‘친구의 지지(β=.38)’이며, 다음으로는 ‘가족의 지지(β=.17)’, ‘아동의 성별(β=.13)’, ‘교사의 지지(β=.12)’, 그리고 ‘아동의 학년(β=-.10)’순서임을 알 수 있다. 즉, 아동이 지각하는 친구 및 가족과 교사의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의 자기평가가 높아지며, 남자아동이 여자아동보다, 5학년 아동이 6학년 아동보다 자기평가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8> 사회적 지지가 자기평가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	b	β
성별(1=남)	3.53	0.13***
학년(1=6학년)	-2.88	-0.10*
친구의 지지	0.95	0.38***
가족의 지지	0.40	0.17***
교사의 지지	0.26	0.12**
F	28.49	
R ²	0.267***	

*p<.05 ** p<.01 ***p<.001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학령기 아동의 사회적 지지와 자기평가의 일반적 경향을 분석하고, 친구, 가족 및 교사의 사회적 지지가 자기평가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행되었다. 연구대상은 초등학교 5·6학년에 재학 중인 아동 397명이었고, 연구 분석을 통하여 나타난 주요 연구결과와 그 의미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령기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는 어느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가족의 지지를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다음으로는 친구의 지지와 교사의 지지 순서로 분석되었다. 이는 학령기 아동의 생활에서 또래 친구의 영향력이 점차로 증대되고 있으나 사회적 지지로서의 중요한 지지원은 여전히 가족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 외부 생활이 증대되는 학령기 발달특성으로 인하여 가족 외의 중요한 타인인 친구 및 교사와의 관계가 아동이 생활에서 점차적으로 그 중요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여 지지만, 여전히 아동에게 있어 지원받고 있으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대상은 무엇보다 가족임을 보여주는 셈이다.

일반적 배경 변수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지지 차이 분석에서는 아동의 성별과 아동이 지각한 가족의 경제수준에 따른 차이만이 나타나서, 여자 아동이 남자 아동보다, 가족의 경제수준을 여유 있는 편으로 지각하는 아동일수록 사회적 지지 수준이 유의하게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사회적 지지 지각에 성차가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성차가 없다는 선행연구들(김경연, 1987; 김명숙, 1994; 김연희, 박경자, 2001; 홍성미, 2010)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둘째, 연구대상 아동들은 자신을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반적 배경 변수에 따른 차이 분석에서는 출생순위와 어머니의 교육수준, 그리고 가족의 경제수준 지각에 따라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즉, 둘째아가 첫째아와 셋째 이하 아동들보다 자기평가 수준이 높았으며,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의 자기평가 수준이 높았다. 또한 아동이 지각한 가족의 경제수준이 여유 있는 편이면, 중간이거나 어려운 편이라고 지각한 아동들보다 자기평가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아동의 자기평가 수준의 차이는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김판규(2003)의 자기신체평가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아동의 성별에 따라 자기평가의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은 본 연구와 동일한 측정도구로

실시한 이명숙(1994)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이다. 그러나 학령기 아동의 자기신체평가를 보고한 김판규(2003)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와 마찬가지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친구와 가족 및 교사의 사회적 지지는 학령기 아동의 자기평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본 연구의 초기 가정 및 선행 연구결과들(여중일, 정문자, 2009; 홍영미, 2010)과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사회적 지지 중에서 가장 높은 설명력을 보인 것은 친구의 지지였으며, 다음으로는 가족의 지지와 교사의 지지 순이었다. 비록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의 수준이 친구보다는 가족의 지지가 높게 나타났지만, 아동의 자기평가에 더 큰 설명력을 갖는 변수가 친구의 지지라는 사실은 아동의 삶에서 친구의 영향력이 미치는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는 친구의 사회적 지지가 초기 청소년의 자기평가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이명숙(1994)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윤주(2004)의 연구에서 아동의 또래수용 및 친한 친구의 상호성과 같은 친구의 사회적 지지 요인이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관련된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생활영역이 가족 외부의 사회적 환경으로 확대되는 학령기 발달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특히 의미 있는 또래 친구와의 관계가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동의 자기평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교사의 지지 역시 가족의 지지 못지않게 아동의 자기평가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어서 교사의 따뜻하고 지원적인 개별 아동에 대한 태도가 자기평가에 중요한 기여 요인이 됨을 보여준다.

이렇듯 본 연구의 결과는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인 “자기평가”라는 개념을 선택하여 학령기 아동의 자기평가의 수준을 보고하고, 자기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지지의 영향력을 살펴봄으로써 아동의 자기평가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고 보여준다. 학령기 아동의 중요한 사회적 환경 요소인 가족, 친구, 교사의 사회적 지지가 자기평가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규명함으로써 아동의 긍정적 자기평가를 돕기 위한 실천적 이해의 기본 자료를 제공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친구의 사회적 지지가 아동의 자기평가에 가장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으므로, 학교나 방과 후 활동에서 또래 간 사회적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보다 많이 개발되고 진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다만,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가족, 친구

및 교사의 사회적 지지의 영향력만을 검증하였으므로, 이외 다양한 사회적 환경에 대한 영향력과 아동 개인의 심리적 특성의 영향력을 다루지 못한 점은 후속 연구의 과제로 남는다. 그리고 자기평가 측정에 있어 대상 아동의 성향에 따라 과대평가, 과소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감안하지 못한 점 역시 본 연구가 갖는 한계라 할 수 있겠다.

참 고 문 헌

- 구정화(1994). 청소년의 자기평가에 관한 조사 연구: 성별, 학교변인별, 가정변인별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19, 95-113.
- 구정화(1995). 청소년의 자기평가에 따른 스트레스 정도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2, 122-135.
- 김경연(1987). 부모의 아동평가, 자아존중,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존중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명숙(1994). 아동의 사회적 지지와 부적응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석우, 김정섭, 김명선, 정혜영, 조영기, 박경미, 정성아, 박동성, 백영옥(2003). **사회과학 연구를 위한 SPSS WIN 10.0 활용의 실제**. 서울 : 교육과학사.
- 김연희, 박경자(2001).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 및 귀인 성향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2(2), 49-64.
- 김판규(2003). 초등학교의 자기 신체평가와 대인관계 성향의 관계, **한국스포츠리서치**, 14(6), 947-956.
- 여종일, 정문자(2009). 사회적 지지와 아동의 우울증상 간의 관계 : 자아존중감을 통한 경로분석. **대한가정학회지**, 47(10), 29-37.
- 이명숙(1994). 기질 및 또래지지가 청소년의 자기평가에 미치는 영향 : 단기 종단적 패널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운주(2004). 학령기 아동의 또래 수용 및 가장 친한 학급 친구의 상호성에 따른 심리사회적 적응. **대한가정학회지**, 42(7), 19-32.
- 한미현(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 지각과 행동문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홍영미(2010). 시설보호아동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 및 자아존중감과 행동문제와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7(12), 187-209.
- Boivin, M., Hymel, S., & Bukowski, W. (1995). The social withdrawal, peer rejection, and victimization by peers in preceding loneliness and depressed mood in childhood.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7(5), 765-785.
- Harter, S. (1982). The Perceived Competence Scale of Children. *Child Development*, 53, 83-97.
- Hymel, S., Bowker, A., & Woody, E. (1993). Aggressive versus withdrawn unpopular children : variations in peer- and self-perceptions in multiple domains. *Child Development*, 68(5), 879-896.
- Festinger, L. (1954). A theory of social comparison process. *Human Relations*, 7, 117-140.
- Newman, B.M., & Newman, P. R. (1995). *Development through Life : A Psychological Approach(6th ed.)*. Pacific Grove, CA : Brooks Cole Publishing Company.
- Rosenberg, M. (1979). *Conceiving the self*. NY : Basic Books.

- Turner, R. J., & Avison, W. R. (1985). Assessing risk factors for problem parenting : the significance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Marriage and th Family*, 47, 881-892.
- Wood, J. V. (1989). Theory and research concerning social comparisons of personal attitudes. *Psychology Bulletin(September)*, 106, 231-248.

Abstract

Social Supports and Self-Evaluation of School-Aged Children

Kang, Hee-Kyung*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s and the self-evaluation of school-aged children. The Social Supports Scale is composed of three factors : social supports from family, friends and teachers. The subjects were 397 school-aged children. The main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level of social supports was generally high, with the highest level being from family. Second, the level of self-evaluation was also generally high. Finally, all supports from family, friends and teacher had positive influences on self-evaluation. The most influential factor was social support from friends. The implications of these results were discussed.

Key Words : school-aged children, social supports, self-evaluation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Seoil College